

# 일본의 국어정책과 일본어교육\*

임영철\*\*

## < 次 例 >

- I. 첫머리에
- II. 일본의 국어정책 기관
- III. 일본의 국어정책의 흐름
- IV. ‘국어’인가 ‘일본어’인가
- V. 결론

## I. 첫머리에

국어정책은 우리들의 언어생활의 기반이 되기도 하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리고 국어정책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한 국가에서 사회적인 정보 전달이나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필요로 하는데 일본의 경우, 공통어의 획득과정이나 국어정책이 이에 속한다 하겠다.

또한 국어정책에는 말씨의 사용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일본의 국어심의회가 건의한 ‘앞으로의 경어’(これからの敬語, 1952)나 ‘현대사회의 경의표현’(現代社会における敬意表現, 2000)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어

---

\* 이 연구는 ‘각국의 자국어 정책과 국어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개최한 제13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교수

정책은 교육을 통해서 실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어교육 진흥에 대해서’(国語の教育の振興について, 1972)나 ‘앞으로의 시대가 요구하는 국어력에 대해서’(これからの時代に求められる国語力について, 2004) 등이 이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국어정책의 내용이나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은 일본(인)론을 살필 수 있는 하나의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일본의 국어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기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활동을 어떻게 전개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일본의 국어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통시적으로 개관한다. 끝으로 ‘국어’와 ‘일본어’ 이어서 ‘국어학’과 ‘일본어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대내외적으로 일본어교육과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립국어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 II. 일본의 국어정책 기관

### 1. 국어조사위원회

1902년 3월, 일본의 국어, 즉 일본어에 대한 최초의 조사기관으로 문부성에 ‘국어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위원회는 동년 7월에 ‘국어조사방침과 조사사항’을 발표하는데 방침 제1항을 보면 ‘문자는 음운문자(phonogram)를 채용하기로 하고 가나(仮名), 로마자 등의 득실을 조사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언문일치체의 채용이나 표준어 선정 등을 방침으로 하여 보통교육에 있어서 급히 서둘러야 할 것에 한자절감, 문체, 자음가나표기(字

音仮名遣い),<sup>1)</sup> 외국어 전사법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한다. 이처럼 동위원회는 각종 조사를 통해서 일본어의 음운, 방언, 한자, 표기법, 구어법 등에 대해서 많은 학술적인 업적을 남겼다.

## 2. 임시국어조사회

일본 정부의 행정조직개편에 의해 1913년 국어조사위원회가 폐지된다. 이후, 교육계라든가 사회로부터 국어(일본어)<sup>2)</sup>에 관한 조사기관을 재설치해야 한다는 요망에 따라 1921년 6월, 문부성 산하에 ‘임시국어조사회’가 설치되었다. 동조사회는 ‘상용 한자표’(常用漢字表, 1923, 1962자), ‘가나표기법 개정안’(仮名遣改定案, 1924), ‘한자체 정리안’(字体整理案, 1926), ‘한자어 정리안’(漢語整理案, 1926-1928) 등 여러 안건을 정리했다.

특히 1923년 9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한자의 제한 사용은 간토대지진(關東大震災)<sup>3)</sup>으로 인하여 실시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1925년 임시국어조사회에서 결정한 한자의 제한 사용을 지지한다는 선언문을 10개 신문사가 게재하여 ‘약 6천자에 달하는 한자를 3분의 1로 제한한다.’고 발표한다.

그 후 동조사회는 1931년 5월, 1,858자의 ‘상용 한자표’를 수정, 발표한다. 그러나 만주사변이 발발하여 중국의 인명, 지명을 보도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한자의 제한 사용은 불가능해졌다. 이후 상용한자의 자수는 수차에 걸친 심의를 거쳐 1946년에는 1,850자, 1981년에는 1,945자, 그리고 2010년 11월 30일, 내각고시 제2호에 의해 현재는 2,136자이다.

---

1) 차자법과 정서법 두 가지를 仮名遣이라고 한다. 정서법은 仮名를 사용하여 표기할 때, 어떠한 글자를 사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규칙으로서 맞춤법의 한가지라 하겠다.  
 2) 여기에서의 ‘국어’란 ‘일본어’를 가리킨다. 이하 국어(일본어)로 기술한다.  
 3) 1923년 9월 1일에 간토지역에 발생한 대지진. 한국인 학살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 3. 국어심의회

1934년 12월, 임시국어조사회를 대신하여 ‘국어심의회’가 설치되었다<sup>4)</sup>. 동위원회는 문부대신(장관)의 자문에 응해 국어(일본어)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관계 각 대신에게 건의 할 수 있었다. 국어심의회는 단순한 조사기관인 국어조사위원회나 임시국어조사회에 비해 권능이 강화되었다.

동위원회는 1935년 3월, 문부대신의 자문에 응해 ‘한자 자체 정리안’(漢字字体整理案, 1938), ‘표준 한자표’(標準漢字表, 1942), ‘신자음 가나표기 법표’(新字音仮名遣表, 1942), ‘국어 가로쓰기에 관한 건’(國語ノ横書ニ関スル件, 1942), ‘외래어 표기’(外来語の表記, 1991) 등 국어(일본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답신을 했다.

2001년 1월, 행정조직재편에 의해 국어심의회는 폐지되고 새로 발족한 문화심의회(국어분과회)에 계승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 4. 임시로마자조사회

로마자에 대해서는 1930년에 설치된 ‘임시로마자조사회’가 오랜 동안 반복된 철자법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고, 헤본식보다 일본식에 가까운 철자표를 답신한다.<sup>5)</sup> 이를 바탕으로 1939년 내각훈령 제3호 ‘국어의 로마자 철자법 통일 건(國語ノローマ字綴方統一ノ件)’이 공포되어 철도역명 등

4) 일본의 국어심의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야스다(安田敏朗..2007) 『國語審議會-迷走の60年』를 참조하기 바란다.

5) 헤본식은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인 헤본(James Curtis Hepburn)이 고안한 일본어의 로마자 철자법의 하나로서 ㄱ을 fu로 ㅅ을 shi로 표기한다. 일본식은 ㄱ을 hu로 ㅅ을 si로 표기한다.

에 널리 사용되었다(이른바 ‘훈령식 로마자’). 하지만 헤본식을 주장하는 논자들의 설득을 얻지 못하여 로마자 표기법 대립은 이후에도 계속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일본의 국어정책 자문 및 심의기관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주로 국어(일본어)의 표기법에 대한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일본어 문장은 ‘한자가나혼용문’(漢字仮名混じり文)이다. 구체적으로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외에도 로마자나 아라비아 숫자 등을 혼용하여 표기체계가 매우 복잡한 언어이다.<sup>6)</sup>

이러한 표기체계는 문자를 갖지 못한 일본인들에게 중국에서 전래된 중국의 문자를 사용해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말을 표현하려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습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한자, 현실적인 발음과 차이가 나는 표기법, 통일성이 없는 오쿠리가나(送り仮名),<sup>7)</sup> 국제적으로 잘 통용되지 않는 문자 체계, 외래어 표기법 등이 비판, 검토 대상이 되었으며 많은 고심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 Ⅲ. 일본의 국어정책의 흐름

#### 1. 근대국가와 국어

1869년 도쿄 천도로 인하여 도쿄는 일본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 당시 정부의 급선무는 중앙집권국가로서 정

6)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주소를 여러 문자를 이용하여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東京都調布市柴崎二丁目一三つっじヶ丘Heim2 0 6号

7) 한자로 된 말을 분명히 읽기위해 한자의 뒤로 보내는 가나(假名)를 일컫는다.

차·사회적으로 전국적인 통일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 예를 들면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구분되어 있는 국민들을 이른바 4민평등(四民平等)이라는 이념 하에 하나의 국민으로 하나의 국가 안에서 통치한다는 그러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인간의 의식의 근간이 되는 말의 통일, 즉 국어(일본어)의 표준화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또한 개국에 즈음하여 대외적으로는 근대국가로서 국어(일본어)를 확립시켜 둘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오쓰키 후미히코(大槻文彦, 1997)는 “광일본문전별기”(広日本文典別記)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사나다·임영철, 1993에서 재인용).

한 나라의 국어는 한 민족임을 증명하고, 안으로는 국민일체의 공의감각(公義感覺)을 단결시켜는 것으로서, 바꾸어 말하면 국어의 통일은 독립을 위한 기초이며, 독립의 표지(標識)이다. (중략) 이 어찌 충실히 확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논조는 청일전쟁(1894-95)의 승리를 배경으로 국가의식이 고양된 시점에서 강렬한 내셔널리즘을 느낄 수 있는데 메이지시대(1868-1912) 중반 이전까지는 일본어의 통일에 대한 논조의 흐름은 객관적이고 온건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어의 통일에 대해서 미야케 요네기치(三宅米吉)는 ‘각 지역의 사투리에 대해서’(くにぐにのなまりことばにつきて, 1884)에서 일본어의 지역차를 해소하고, 일본어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한다(사나다·임영철, 1993에서 재인용).

(1)아언주의: 고어, 아언을 기본으로 삼아 각 지역 방언을 이에 회귀시켜간다는 방법이다.

- (2)현대어주의: 교토말을 표준으로 하는 방안과 도쿄말을 표준으로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 (3)다수결주의: 도쿄나 교토는 대도시로서 각 지역 말이 잡다하게 섞여 있으므로 전국 방언을 조사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을 채용한다.

그러나 어느 방법이든 현실적으로 실시하는데 곤란한 점이 있다고 논하고 우선 조사부터 실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논조를 전개하는데 그의 나이 25세의 청년이었다고 한다.

## 2. 한자폐지의 검토

일본어의 표기문제에 도화선을 당긴 것은 1866년 당시의 장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에게 건의한 마에지마 히소카(前島密)의 ‘한자폐지론’(漢字御廢止之議, 1866)이다. 이는 국민에게 교육을 보급할 때, 서양 여러 나라처럼 쉽고 간명한 문자나 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이 곤란한 한자는 폐지하고 가나를 사용하여 언젠가는 일상적인 문장에서도 한자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어서 1869년 한학자인 난부 요시카즈(南部義籌)가 ‘수국어론’(修國語論)을 건의한 바 있다. 이는 서양의 26문자로 국어(일본어)를 바꿔야 한다는 이른바 로마자론이다. 그리고 1872년에 로마자 채용에 관한 건의서인 ‘문자개혁안’(文字ヲ改換スル議)을 제출한다(사나다·임영철, 1993에서 재인용).

불편한 한자를 대단히 편리한 알파벳으로 바꾸어, 우리나라 고유의 말을 배우기 쉽다는 방향으로 인도하면, 사람들이 이에 따를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일 것이다. 실로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즉 지금이야말로 한자를 폐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논조는 개국에 즈음하여 일본의 제도, 관습을 서구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인 구미의 모든 것을 흡수하는 것, 즉 그것만이 부국강병의 길이라는 식자들의 슬프고도 초조한 마음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이와 같은 급진적인 논의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오쿠보 토시미치(大久保利通)는 한자폐지는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한자는 지식계층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민 각계각층은 지식계층의 지도에 따르고 있다. 지식계층의 존재를 무시하려는 대변혁, 즉 한자폐지가 과연 승산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가운데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는 한자에는 확실히 적당치 못한 곳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 바로 모두 없애는 것도 적당치 못하다. 한자폐지는 그 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교적 온건하게 논하고 도달 과정으로 ‘문자지교’(文字之教, 1873)에서 다음과 같이 ‘한자 제한론’을 주장한다(사나다·임영철, 1993에서 재인용).

어려운 한자를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것이다. 어려운 한자만 사용하지 않으면 한자의 숫자는 2천 자나 3천 자로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자개혁론과 함께 문체나 용어의 개신이 문제시되었다. 외국어와의 접촉, 구체적으로는 번역의 형태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많은 번역물이 출판되는 가운데 1887년경까지는 대개 한문직역체의 가나혼용문이었다. 그러나 1887년대 후반부터는 점차 원문



을 충실히 번역하려는 변화가 일어나 이러한 변화는 이윽고 언문일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3. 언문일치의 시도

일본어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구어와 문장어라는 두 가지 문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헤이안시대(794-1192)에 가나가 만들어지고, 가나가 보급됨과 동시에 가마쿠라시대(1192-1333), 무로마치시대(1336-1573) 이후, 구어와 문장어는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별개의 언어체로 발전해 갔다. 이 두 문체의 합일이 언문일치인데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간다 코우헤이(神田孝平)가 ‘문장론을 읽다’(文章論ヲ讀ム, 1885)에서 ‘평소의 회화체로 문장을 쓰면, 즉 그것이 언문일치이다.’라고 기술한 바와 같이 문장어를 될 수 있으면 구어에 접근시키려는 것이 언문일치이다.

이러한 언문일치운동은 1887년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가 소설 “부운”(浮雲) 그리고 야마다 비묘(山田美妙)가 “호접”(胡蝶)을 써서 문단에서 일거에 일어나게 된다. 그 후 문예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계몽서나 신문 분야에서도 진척되었으며 1946년 공용문에 ‘である체’, ‘ですます체’<sup>8)</sup>가 채용되어 비로소 공용문의 구어화가 실현되었다.

### 4. 표준어의 시작

1902년, 문부성 안에 설치된 국어조사위원회는 국어·국자의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정부 조사기관이다. 동위원회가 처

8) ‘である체’는 보통체이며, ‘ですます체’는 공손체이다.

음에 내세운 조사방침은 다음과 같다.

- (1) 문장은 음운문자를 채용하기로 하고 가나, 로마자 등의 득실을 조사할 것.
- (2) 문장은 언문일치체를 채용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조사를 할 것.
- (3) 국어(일본어)의 음운 조직을 조사할 것.
- (4) 방언을 조사하여 표준어를 선정할 것.

여기에서 처음으로 ‘표준어’라는 용어가 공적인 문서에 등장한다. 그리고 standard language의 역어로서 표준어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이다. 그는 1890년 “일본어학일반(日本語學一斑)”에서 다음과 같이 논한다(사나다·임영철, 1993에서 재인용).

사회 변동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데 사용된 것이 즉시 표준어의 위치를 차지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방언이 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준어가 되고 방언이 되는 것은 사상을 교환하는 도구로서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 전체의 정치상의 형편이나 상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즉 표준어가 될 언어는 그 언어 자체의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외적인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인 1895년, 우에다 카즈토시(上田万年)가 ‘표준어에 관하여(標準語に就きて)’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는 이 논문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여러 선진국들의 표준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달 확립되었는가에 대해서 개관하고 일본어도 아름답고 세련된 표준어로 성장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논문은 각 방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표준어’라는 명칭이 일본에 정착하게 된 것도 이 논문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5. 도쿄어 준거론(準據論)

전술한 국어조사위원회란 우에다 카즈토시(上田万年)의 진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방언을 조사하여 표준어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우에다 카즈토시(上田万年)의 머릿속에는 각 지역의 여러 방언 중에서 ‘도쿄어에 준거하여 표준어를 선정한다.’라는 방향으로 이미 굳어져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실제 이 시기의 논조는 이미 ‘도쿄의 중류사회 교양층 언어’를 기조로 표준어를 선정한다는 기준에서 수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도쿄어 준거론이 명시적으로 규정(規定)된 것은 1916년에 간행된 국어조사위원회의 “구어법(口語法)”에 의해서이다. 그 범례에 도쿄어를 표준으로 해서 구어법을 정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사나다·임영철, 1993에서 재인용).

주로 오늘날 도쿄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구사되고 있는 구어를 표준어로 정하고, 그 이외 지방의 구어법칙이라도 널리 사용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취사선택한다.

이후, 구어법과 구어법의 해설서인 “구어법별기(口語法別記, 1917)”는 학교문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도쿄어 준거론은 그때까지의 표준어론을 매듭짓고 다이쇼시대(1912-1926)에서 쇼와시대(1926-1989)에 이르는 표준어 정책과 표준어 교육의 방향을 결정했다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어(일본어)관은 닛타 요시오(仁田義雄, 1995)에 의하

면 우에다 카즈토시(上田万年)뿐만 아니라 강약의 차이는 있으나 세키네 마사나오(関根正直, 1860-1932), 오쓰키 후미히코(大槻文彦, 1847-1928), 마쓰시타 다이사부로(松下大三郎, 1878-1935) 등과 같은 국어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어 정책과 표준어 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한 명목 하에 한편에서는 방언에 대한 탄압도 심해졌던 것이다.

## 6. 국정교과서의 용어

메이지시대(1868-1912) 초기에 이르자 도쿄어는 교양층 사이에서는 전국적으로 거의 통용되는 상황이 도래해 있었다. 그리고 최초의 국정교과서인 “심상소학독본(尋常小學讀本)”이 구어체 문장을 전면적으로 채용하여 1904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사용되었으며 당시의 아동취학률은 94.4%로 매우 높았다. 따라서 표준어 교육은 거의 대부분의 아동들에게 실시되었으며 특히 ‘읽기’, ‘쓰기’능력 향상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 효과야 어찌됐든 문장어적인 표준어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준어를 들을 기회가 없었던 지방 어린이들에게 교과서 말만으로 ‘듣기’, ‘말하기’를 강요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1925년에 개시된 라디오방송은 전 국민에게 구체적인 표준어를 들을 기회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표준어를 음성적으로 이해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 그리고 방송의 발달은 표준어 보급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말 그 자체도 점차적으로 다듬어지고 세련되어 갔으며 표준어 내용 그 자체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 7. 방언박멸운동

메이지시대(1868-1912)의 일본어의 통일에 대한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도 계속되었다. 따라서 일본어의 변이(variation)를 인정하고 공통의 매개물로 통일을 도모하려는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지의 방언에 대한 존재도 정당하게 인정하고 또 다른 레벨의 공통어로 각지를 연결하려는 생각이 확산된다. 그렇지만 당시는 2중언어병용(bilingualism)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때문에 각지의 방언은 표준어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 무용지물로 간주되어 사회적으로 악(惡)의 존재와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 악을 제거하는 것이 표준어 정책이었으며 국어(일본어)교육의 목표가 되었다.

따라서 방언박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것은 말하자면 당연한 과정이 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방언박멸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의 적발이나 생도의 고발에 의해 방언을 사용한 생도에게는 목이나 등에 방언 표찰(方言標札)을 붙이는 예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도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표준어를 잘 구사하는 어린이들로 만들 수 없었으며 오히려 자기들의 모어에 대한 비굴한 패배감만 조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표준어 교육은 도쿄와 지방, 특히 도쿄와 도호쿠(東北)지방 사이에 커다란 거리감을 조성하였다. 표준어 교육은 번(藩)<sup>9)</sup>으로 분할된 영민을 평등한 국민으로 통일하려는 일본어의 통일이라는 이상에서 실시되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새로운 지방 분할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표준어 교육은 지역의 분할 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분열도 가져왔다.

이러한 가운데 방언계층이 해방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9) 에도시대(江戶1603-1867)의 다이묘(大名)의 영지나 그 정치 형태를 일컫는다.

패전 후 개성을 중시하는 풍조가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언어의 다양성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위에 공통의 매개물인 공통어로 각지를 연결하려는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 8. 언어교육의 이데올로기

### 1) 언어의 단색화

메이지시대(1868-1912)이래 방언박멸을 지향했던 표준어 교육은 일본어를 단색(one pattern)화 하는데 그 이상을 두었다. 이는 한 나라 안에서는 언어 차이가 존재할 수 없으며 또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더욱 양양시켰다. 일본은 애초부터 일본어와 또 다른 언어가 병존하는 상황에 이른 적이 없으며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도 없다. 따라서 일본인은 언어가 사람에 따라 다르며 사물을 파악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현실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언어 차이를 잘 인식한 후에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이해의 정신인데 국내 방언의 다양성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인에게는 이러한 정신은 좀처럼 갖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일본인은 일본이라는 섬 나라 안에 안주하려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일본인의 문화적 성격이 여기에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메이지시대 이래의 국어(일본어)교육은 일관되게 개성이 풍부한 방언을 박멸하고, 표준어라는 미명 하에 지역의 발상을 단색화 하여 지배하려는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 2) 표준은 하나만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통어’라는 용어가 국어(일본어)교육 지도자들

에 의해서 국어(일본어)교육현장에서 사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공통어란 표준어를 대신하는 새로운 말이라는 선전이 활발해졌다. 그런데 공통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된 배경에는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표준어 교육에 대한 반발이 있다. 즉 일본 정부가 표준어 보급을 이데올로기 교육과 연관시켜 상부의 강요에 대한 반발에서라고 볼 수 있다.

사토 기요지(佐藤喜代治)편의 “국어학연구사전(國語學研究事典, 1977)”에 의하면 공통어란 ‘국내에 방언차가 있어도 그것을 초월하여 서로 다른 지방 사람끼리도 의사를 통할 수 있는 언어’라고 기술되어 있다.

공통어는 common language의 역어인데 원의적(原義的)으로는 서로 다른 언어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제3의 언어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통용되는 말레이어라든가, 동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 등과 같은 것이다. 영어는 세계 각지에서 공통어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통어라는 용어는 원의에 비추어 보면 약간 레벨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준어가 공통어로 바뀐 배경에는 일본어에는 표준어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어에 표준어가 있다고 한다면 단지 일본 전국 어디에서나 통하는 공통어가 있을 뿐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일부 교사들에게 그렇다면 ‘일본어에는 가르칠 표준어가 없다는 말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했던 것이다.

표준어의 ‘표준’이라는 말을 단지 하나의 규범으로 한정하고, 그것을 법률이나 훈령에 의해서 제정한 것이라면 그러한 표준어는 일본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표준’을 이와 같이 협의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 범위가 너무 좁으며 또한 표준이라는 것은 하나만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표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니까 표준을 정해 놓고 변화에 따라 재평가하고 개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란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 3) 방언과 학교교육

지금까지의 일본의 국어교육은 방언의 미세한 차이라든가 뉘앙스는 거의 문제시 되지 않고 무시되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도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일본어)시간에 표준어를 가르칠 때 표준어를 매개로 해서 가르친다. 그러나 방언과 대조하여 표준어를 재확인하고 자기 자신의 방언을 재확인한다는 것은 언어에 대한 감성을 연마하는 기본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 현장에서 방언 그 자체만을 다루고 흥미본위로 가르친다면 결국 방언이란 어딘지 모르게 신기한 것, 방언은 틀린 것이라는 뉘앙스만 심어 주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방언은 항상 표준어와 대응시켜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방언과 비교하면서 비로소 표준어의 올바른 모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V. ‘국어’인가 ‘일본어’인가

### 1. 쟁점이 된 용어

#### 1) ‘국어’인가 ‘일본어’ 인가

기타하라 야스오(北原保雄, 1993)에 의하면 ‘국어’라는 용어는 에도(江戸, 1603-1867)시대 중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한자어’에 대한 ‘화어’(和語, 고유일본어)를 의미하여 일본어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는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는 ‘국어’라는 개념은



메이지 20년(1887)대가 되면서 ‘국가’와 ‘국민’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형태로 먼저 아카데미즘 영역에서 변모하게 된다. 즉 ‘국가’의 기반으로서는 혹은 ‘국민’의 유대로서 ‘국어’라는 정치적 색채가 농후해진다.

이후 이와 같은 ‘국민국가’를 전제로 한 ‘국어’ 규정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메이지 33년(1900) 초등학교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초등학교에 ‘국어’ 과목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단지 교과서의 과목명에만 그치지 않고 학교 제도의 도입과 함께 일반화되어 널리 보급 정착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sup>10)</sup>

한편 ‘일본어’라는 용어는 국어가 갖는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적인 뉘앙스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인 시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 2) ‘국어’인가 ‘일본어’인가

일본 국내에서 ‘국어학’이라는 명칭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하지만 국어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전통 있는 ‘국어학’이라는 명칭을 국제화라는 미명하에 가볍게 ‘일본어학’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국어학’이란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일본 특유의 학문으로서 외부의 조류로부터 초연할 수 있다는 선입관이 존재한다.

국제사회에서의 일본, 그리고 일본어의 위상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해외에서 일본어나 일본인, 일본문화와 교류할 기회는 앞으로 점점 더 증대될 것이다. 실상 일본어교육이나 일본어 연구는 일본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10) 한국은 한일병합(1910)직전에 ‘국어’라는 용어를 받아들여, 지금도 과목명으로 ‘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국어’라고 하면 ‘한국어’를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조선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해외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sup>11)</sup> 또한 해외 연구자의 연구업적 중에는 전통적인 국어학의 방법으로는 발상할 수 없는 참신한 것이 적지 않다. 그러한 연구에는 당연히 ‘국어학’이란 명칭보다는 ‘일본어학’이라는 명칭이 알맞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본어학의 동향과는 대조적으로 국어학의 연구영역을 살펴보면 ‘국학’<sup>12)</sup>의 전통이 뿌리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나 조류와는 상관없이 종래의 연구 입장을 고수하려는 연구자도 적지 않다. 국어학이라는 학문이 특히 일본 국내의 연구를 중시하고 좀처럼 해외의 연구 성과나 연구 동향에는 주의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 3) ‘국어학’에서 ‘일본어학’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국어학 연구란 ‘국어사연구’라는 풍조가 강했다. 하지만 1945년 패전에 의해 기존의 권위와 가치관이 붕괴되고 최근에는 계량국어학, 컴퓨터언어학, 사회언어학, 인지언어학 등 새로운 어프로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의 새로운 시점, 방법론의 도입, 연구대상의 확대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현대어 연구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11) 일본 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한 ‘해외일본어교육기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전 세계 133개국에서 3,651,761명이 일본어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12) 협의로는 도쿠가와(徳川)시대 후기, 당시의 학문을 존중하고, 한학의 고학(유학(儒學))의 일파로 경서(經書)의 본문에 대한 연구 부흥이 한창일 때, 중세적인 인습으로부터 벗어나 일본적인 자각(自覺)에 입각하여, 고어의 근거 있는 연구 성과를 통해 고전을 이해하고, 일본인으로서의 규범과 고도(古道: 고대의 도의·학문·방법)를 확립하려 했던 학파를 가리킨다. 연구 입장 및 고어의 연구방법, 고전 선택법, 규범의 수립 등, 내용에 따라 학자의 경향이 다르며, 후세의 평가 또한 다르다.

특히 ‘국어학’ 안에서도 변혁의 흐름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 과거의 연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과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새롭고 신선한 시점으로 일본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래에 ‘국어학’이라는 명칭 하에 이루어진 연구와 근래의 ‘일본어학’이라는 명칭 하에 이루어진 연구는 모두 동일한 ‘일본어’를 대상으로 한 학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본어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언어학이라는 의견에 입각하면 ‘국어학’이라는 자민족 중심주의적인 명칭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회나 학술지 그리고 학과명의 변경 때문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4년 1월, ‘국어학회’는 ‘일본어학회’(영문명은 ‘국어학회’와 동일. The Society for Japanese Linguistics)로, 학술지명은 2005년 “日本語の研究”(영문명은 “國語學”과 동일. Studies in the Japanese Language)로 바뀌었다.<sup>13)</sup> 그리고 대학의 학과명도 바뀌고 있다.

미야지마 타쓰오(宮島達夫, 1994)에 의하면 1953년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국어국문학과’였는데 1993년에는 ‘국어국문학과’와 ‘일본어일본문학과’가 거의 반반을 차지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신설된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학은 하나도 없으며 ‘국어국문학과’라는 학과명은 비율뿐만 아니라 절대치에서도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 2. 일본어 교육 연구기관으로서의 ‘국립국어연구소’

1948년 12월에 설립된 국립국어연구소는 국어(일본어)에 관한 종합적

---

13) 한국도 일본처럼 1959년에 창립된 ‘국어학회(The Society of Korean Linguistics)’도 있으며, “국어학”(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1962년 창간)이라는 학술지도 있다. 학과명도 일본과 같이 ‘국어국문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한 국문학과’를 학과명으로 사용하는 대학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연구기관으로서 ‘국어 및 국민의 언어생활,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라는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9년 10월, 정부의 기구개편에 의해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인간문화연구기구국립국어연구소’로 개칭하여 활발한 교육,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어교육부분’을 ‘일본어교육연구·정보센터’로 개편하여 언어자원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국어연감”, “일본어교육연감” 등에 축적되어 있는 연구 정보는 물론, 새롭게 얻어진 연구 성과와 연구 정보·자료를 일본어학, 일본어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국인 일본어 학습자나 일반인들도 이용 가능하도록 웹상에 공개하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소는 각종 조사 보고서 발행 등 많은 업적을 남기었으며 공동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sup>14)</sup> 주목할 점은 ‘일본어교육부분’을 ‘일본어교육기반정보센터’로 개편하여 다문화 공생이 요구되는 현대 일본 사회에 있어서 일본어 교육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외국인의 일본어 학습 효율화나 이문화 마찰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 V. 결론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일본의 국어정책을 수립, 심의하는 기관과 일본의 국어정책의 통시적인 흐름, 그리고 일본어교육에 대해서 개략하였다.

---

14) 공동연구는 다음과 같이 4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

- (1)일본어의 특질에 관한 기술적·이론적 연구.
- (2)소멸위기 방언에 관한 연구.
- (3)현대어 코퍼스 구축과 역사 코퍼스의 설계·개발.
- (4)일본어 교육에 관한 연구.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일본의 국어정책 기관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주로 외래어 표기법, 가나 표기법, 오쿠리 가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일본어)의 표기법에 대한 것이 많았다.
- (2) 메이지시대 이래의 국어교육은 일관되게 개성이 풍부한 방언을 박멸하고 표준어라는 미명 하에 지역의 발상을 단색화 하여 지배하려는 역할을 했다.
- (3) 국립국어연구소는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서 많은 업적을 축적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공생이 요구되는 현대 일본에 있어서 외국인의 일본어 학습의 효율화나 이문화 마찰 해소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任栄哲 外譯(1999), 『日本國語學50年』, 時事日本語社.
- 任栄哲(2009), 「国語学から日本語学へ」, 『日本研究』제12집, 高麗大学校日本学硏究センター, pp.163-174.
- 川口良·角田史幸(2010), 『「國語」という呪縛—国語から日本語へ、そして〇語へ』, 吉川弘文館.
- 北原保雄(1993), 「『日本語』か『国語』か」, 『月刊日本語論』第1卷第1号, 山本書店, pp.4-7.
- 京極興一(1996), 『国語とは何か』, 東宛社.
- 国語学会編(1980), 『国語学大辞典』, 東京堂出版.
- 真田信治·任栄哲(1993), 『社會言語學의 展開』, 時事日本語社.
- 真田信治(1987), 『標準語の成立事情』, PHP研究所.

---

\* 이 논문은 2011. 10. 30. 투고되었으며, 2011. 11. 20. 심사가 시작되어 2011. 12. 5.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1. 12. 9.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真田信治(2000), 『脱・標準語の時代』, 小學館文庫.

清水康行(2000), 「『国語学』という選択」, 『国語学』第200集, 国語学会, pp.12-14.

仁田義雄(1995), 「『国語』を考える」, 『江戸の思想』2 ペリカン社 pp.132-143.

前田富祺(2004), 「機関誌の新名称について(ご報告)」, 『国語学』第55巻3号, 日本語学会, p.116.

宮島達夫(1994), 「国語国文学科と日本語日本文学科」, 『月刊日本語論』第2巻6号, 山本書房, pp.44-45.

安田敏朗(2007), 『国語審議会-迷走の60年』, 講談社現代新書.

## &lt;국문초록&gt;

## 일본의 국어정책과 일본어교육

임영철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일본의 국어정책을 수립, 심의하는 기관과 일본의 국어정책의 통시적인 흐름, 그리고 일본어교육에 대해서 개략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일본의 국어정책 기관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주로 외래어 표기법, 가나 표기법, 오쿠리 가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일본어)의 표기법에 대한 것이 많았다.

(2)메이지시대 이래의 국어교육은 일관되게 개성이 풍부한 방언을 박멸하고, 표준어라는 미명 하에 지역의 발상을 단색화 하여 지배하려는 역할을 했다.

(3)국립국어연구소는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서 많은 업적을 축적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공생이 요구되는 현대 일본에 있어서 외국인의 일본어 학습의 효율화나 이문화 마찰 해소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 일본의 국어(일본어)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국어정책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반복해 온 표준어와 방언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다. 금후 필자에게 과해진 과제라 하겠다.

[주제어] 국어정책, 표준어, 공통어, 일본어교육, 용어

<Abstract>

## Japan's Policy on Official Language and Japanese Education

Yim Young Cheol

This paper gave an outline of the agency which has established and deliberated the official language up to the present in Japan, the diachronic stream of their policy on the official language, and Japanese educ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controversial issue in the Japanese language policy agency was found to be mainly on orthography of their official language.

(2) The official language education since the era of Meiji has consistently played a role in exterminating the dialects rich in personality and dominating a regional thinking by making it into a solid color under the cloak of the standard language.

(3)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Japanese Language has accumulated their achievements through various sorts of the examinations of actual conditions. In addition, Japan, under the pressure of multi-cultural symbiosis, is going on with the research for the efficiencies in foreigners' learning Japanese and solutions to intercultural frictions.

[Key Word] Official Language Policy, Standard Language, Common Language, Japanese education, Terminology